“‘위안부 망언’ 류석춘 파면하라”

700개 시민단체 “위안부 모욕에 학생 성희롱까지…교수 자격 없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망언논란이 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YMCA, 한국진보연대 등 7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망언을 자행하고, 반박하는 학생에게 성적모욕을 강한 류 교수는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연세대는 류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제가 징용령을 통해 조선인을 강제동원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분군·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은 구 일본군 문서와 연합군 문서, 병사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교수는 진실 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오류를 문제삼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진실이 아닌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며 조선인 노동자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모욕하고 있다”며 “심지어 반박성 질문을 하는 학생을 향해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며 성희롱을 했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철학과에 재학 중인 강새봄 학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대자보를 붙이고, 대응에 나섰다는 것은 류 교수의 발언이 명백한 역사왜곡이자 성희롱이라는 뜻”이라며 “더이상 비싼 등록금 내고 듣는 강의에서 답답한 혐오발언을 듣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도 “류 교수는 학자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고통을 더해줬다”며 “류 교수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입장보다도 더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무총장은 “류 교수는 정의기억연대가 할머니들을 추동해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정의기억연대 차원에서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고, 학교 역시 자격이 없는 류 교수를 파면해야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류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며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많은 국가가 매춘을 용인하고 있는데 일본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류 교수는 “지금 매춘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판 것인가”라며 “살기 어려워서 (제발로) 매춘하러 간 것”이라는 답을 했다고 한다. 류 교수는 “지금도 매춘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렇다, 매너 좋은 손님에게 술만 팔면 된다고 해서 하다보면 그렇게 된다”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교수는 “수업 중 매춘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에 일부 학생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에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한 번 해볼래요?”라고 말한 것’이라며 “이 발언은 학생에게 매춘을 권유하는 발언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총학생회와 대학당국이 이번 발언을 두고 진의를 왜곡한 채 사태를 혐오발언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며 “강의실에서의 발언을 맥락 없이 비틀면 명예훼손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는 학교 차원의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류 교수의 해당 교과목에 대해 강의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연세대는 “소속 교수의 강의 중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19일 류 교수의 강좌 운영 적절성 여부에 대해 윤리인권위원회(성평등센터)의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뉴스1

밥맛을 평가한다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한 벼 즉석 도정기 시연 및 밥맛 시식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밥을 시식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 강도·절도 미제사건 3221건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강도와 절도 미제사건이 총 32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강도 미제사건은 3건, 절도 미제사건은 6만899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광주의 경우 지난해 1451건의 절도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는 2014년에 4426건의 절도 미제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2015년 절도 미제사건 3495건, 2016년 강도 미제사건 1건, 절도 미제사건 2051건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또 2017년에는 절도 미제사건 1440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1770건의 절도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은 2014년 강도 미제사건 1건, 절도 미제사건 3771건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2015년에는 절도 미제사건 3209건, 2016년에는 절도 미제사건 2160건, 2017년에는 절도 미제사건 1716건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다행히 광주와 전남지역의 강·절도 미제사건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1

경찰, 서민 3不 사기범 4837명 검거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3대 사기범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이 생활사기범 23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서민 3불(불안·불행·불신)’ 범죄 단속 후 전화금융사기, 인터넷사기, 보험사기 등 6910건을 적발해 4837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유형으로는 인터넷사기가 가장 비중이 컸다. 인터넷사기는 4623건 적발돼 1611명(구속 44명)이 검거됐다. 보이스피싱이 1740건, 171명이 구속됐고 보험사기는 283건이 적발돼 573명(구속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외에도 메신저피싱 114건, 불법대부업 74건, 유사수신·다단계 사기도 35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터넷 사기범들은 물건을 저렴하게 팔겠다며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후 연락을 끊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거래할 때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이슈 판결

‘8명 사상’ 축구클럽 前코치 금고형 판결에…유족 “못 받아 들인다”

8명의 사상자를 낸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사고’의 운전자인 전 축구코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그 자리에서 울분을 토해냈다.

25일 오후 2시 411호 법정에서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축구클럽 강사이자 운전자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신호위반, 과속으로 교통사실을 야기했다”며 “고의에 의한 사고는 아니지만, 과실의 정도도 중하고 피해 결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나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숨진 초등학생은 한 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판사를 향해 울분을 쏟아냈다.

이 유족은 “누가 반성을 하냐? 저 강사(피고인)는 유가족들에게 반성문 한 장 제대로 쓴 적이 없다”며 “강사 어머니도 사과 한마디 없이 ‘재산 가압류하라’는 돈 이야기만 운운했다”고 외쳤다.

이어 “저는 강사가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강변했다.

유족은 2~3분여간 방청석에서 이 판사를 향해 이날 판결에 대해 원망을 쏟아냈다. 법정을 나와서도 유족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1심 판결에 대한 양형 이유를 들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근 사거리에서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운행하다가 B씨(48·여)가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C군(8)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